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

‘2023국제농업박람회’ 행사기간 무료 시식회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돕고 국내산 오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2023국제농업박람회’ 행사 기간에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옆)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는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무료 오리고기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오리고기의 칼로리는 100g당 134kcal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은 풍부하기 때문에 근 손실이 오기 쉬운 환절기에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광주전남도지회 전영욱 지회장은 “전남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순천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장에서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박람회를 찾아온 많은 관람객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